

제6회 신행수기 당선작 (관음종 총무원장상)

길을 찾아 나서다

심성일 - 부산시 북구 화명동 -

나는 흔히 얘기하는 '38세대'다. 내포래의 젊은이들이 대부분 그러했듯이 나도 대학시절 나라와 사회에 대한 고민들중 하나를 화두로 간직하고 살았다. 그 시절 내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극명하게 나뉘어져 채 부조리하게 돌아가는 세상을 변화하고자 하는 열정이었다. 그래서 분별력 있는 이성의 힘으로 세상의 불합리함에 맞서 투쟁하는 것이야말로 의롭고 참된 일이라 믿었다. 또 불합리한 현실사회에 무관심한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란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다. 특히 여러 종교 가운데서도 불교를 비근 대적이고, 미신적이며 주관적 유심론의 허무주의로 생각했다. 적과 동지가 분명한 시대에 '분별없는 마음'이니 '불이 아닌 법문'이니, '인욕바라달'과 무조건적인 '자비'의 사상은 나에게 현실도피로밖에 비춰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90년 이후 소비에트와 동구권 공산주의의 몰락을 보면서 우리들이 80년대에 가졌던 절대적 이상 중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반성하게 되었다. 인간이 합리적인 이성으로 인해 물질적 탐욕과 부도덕한 자기애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했던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차츰 인간의 마음, 내 자신의 내면 세계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직장 동료로 절친하게 지내던 분이 대전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어 예식 시간보다 조금 일찍 대전역에 도착한 나는 시간을 보낼 곳을 찾다 우연히 불교용품 백화점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것저것 구경하다가 기념으로 책이나 한 권 사려고 주인아저씨께 자문을 구했더니, <천수경 이야기>라는 알파한 책 한 권을 골라 주었다. 예식을 마치고 부산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나는 난생 처음으로 절에서 본 천 개의 손과 눈을 가진 관세음보살이 미신적 숭배대상이 아니라, 고통의 바다에서 허덕이는 중생을 제도하려는 보살의 이타성이 상징적으로 표현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보살들이 구현하려는 정토(淨土)나 불국토(佛國土)야말로 모든 중생이 자유와 평등을 누릴 수 있는 참 세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말 그대로 '위엄이 깊고 오묘한 진리는 백천만겁이 지나도 만나기 어려운데 이제서야 내가 듣고 보고 지니게(無上甚深微妙法 百千萬劫難

중년 남자가 물었다 "처사는 지금 어디 있소" 순간 소름이 돋고 머리속이 행하니 비는 듯한...

다가 불교는 단지 철학이지 종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불단에 정성껏 공양물을 바치고 염원이 절하는 불자들을 보면 측은하게 여기는 어리석음을 뼈저지렀다. 그러던 가운데 <입제록>과 <육조단경>을 공부하며 선(禪)을 접하게 되었다. 하지만 선을 참구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여러 조사어록과 법어집, 수행담을 읽으면서 선에 관련된 지식을 쌓았다. 언제나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유만이 진리로 가는 첩경이라고 믿었던 나는 비록 문자를 통한 것이었지만 선은 하나의 커다란 충격이었다. 어쨌든 본 선문답들은 너무나 어이없는 비약과 생략, 비논리성을 띄고 있어 아무리 머리 속으로 생각해 보아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조사어록을 뒤져서 나름대로 화두를 풀이하고, 선재들의 문답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던 서른한 살 되던 해 봄, 우연히 집 근처에 있는 석불사란 암자를 찾게 되었다. 이때는 이미 선과 불교에 대해 어느 정도 알았다고 생각하고는 인도 명상가들의 책들을 뒤적이며 무렵이었다. 자아성찰법을 내세운 라마나 마하리쉬와 <있는 그대로>란 책을 열구리에 끼고 석불사 마애관세음보살상을 구경하며 있을 때였다. 한참 멍하니 불상 구경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주위를 살피니, 옆에 이상한 중년의 남자가 줄곧 나를 훑어져라 바라보고 있는 것이 눈에

피었다. 검은 얼굴에 눈은 황달기가 있는 지 누렇게 목에는 아주머니들이나 두들 것 같은 화려한 색깔의 스카프를 맨, 첫눈에도 제 정신이 아닐 것 같은 사람이었다. 나는 애써 무시하고 눈길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데 그 사람이 말을 걸어왔다. "여보시오, 처사! 그게 무슨 책이오?" 내가 들고 있던 책이 눈에 띄었던 모양이다. 나는 속으로 귀찮았지만 당신같은 사람은 봐도 모를 책이라는 듯 대답 없이 슬쩍 책제목을 보여주었다. 그러자 그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중년 남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있는 그대로”라 참 제목이 좋구려. 그 래 책 읽어서 알 테지만, ‘있는 그대로’의 처사 자신을 알고는 있으시오?” 순간, 소름이 돋고 머리 속이 행하니 비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재빨리 정신을 차리고 예전에 읽었던 조사어록과 선 관련 철학서들의 내용을 머릿속으로 헤아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중년 남자는 “처사, 처사는 지금 어디 있소?”라고 다시 물었다. 여전히 내가 아무 말도 못하는 그 남자는 혀를 끌끌 차며 마지막 한 마디를 남기고 자리를 뜨는 것이었다. “쫄쫄, 업장이 두터워서 안되겠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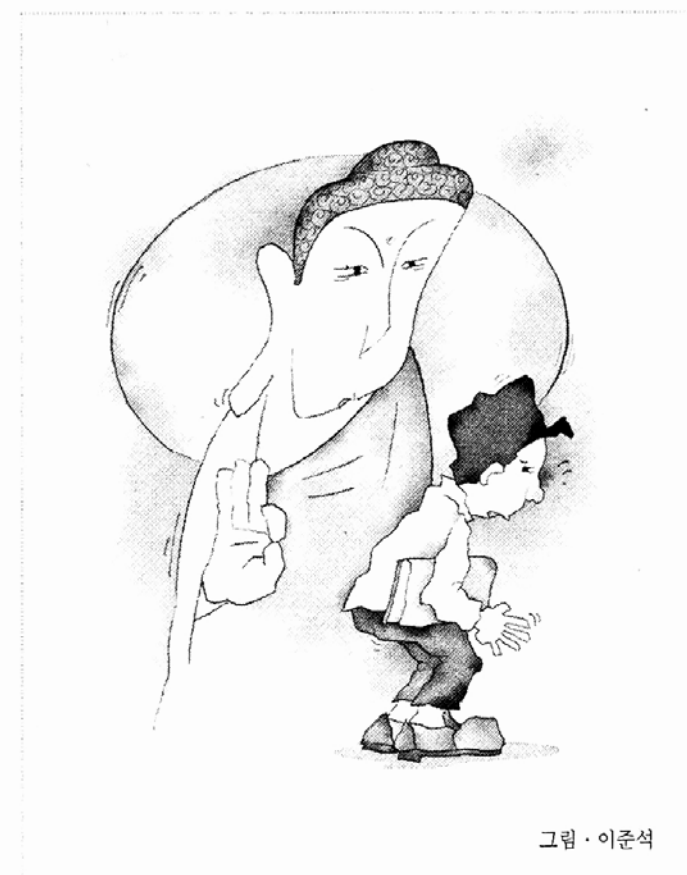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서 그 남자가 유유히 사라지고도 한참이 지나서야 겨우 절에서 내려왔다. 사시나무처럼 떨리는 다리로 내려오면서 그렇게 수년을 걸려 수많은 경전과 어록, 논서, 철학서를 읽고도 '네 자신이 누구냐?'라는 단순한 물음 앞에 왜 한마디도 못했을까 자문하니 그 동안 쓸모 없는 지식을 가지고 우쭐했던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한심스러웠다. 마치 동명이를 금덩이로 착각하고 주무르고 있던 내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그 사람 덕분에 세삼 깨치게 된 것이다.

금 생각해 보면 그 분이야말로 나의 어리석음과 아만심을 깨뜨리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식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좌우지간 나는 처음으로 인간의 이상적 사유와 논리성에 기초한 사고가 진리를 파악하는데 도움보다는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

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 실제 수행이 없는 지식의 확장과 심화는 깨달음은 커녕 오히려 아만심과 어리석음을 길러 줄뿐이라는 사실도 뼈저리게 느꼈다. 석불사에서 내 공부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고는 이런 저런 수행법을 시도해 보기도 마음 먹었다. 기공(氣功) 서적을 읽을 때는 기공을 해 보고, 인도 명상서적을 읽을 때는 만트라나 차크라에 의식을 집중하는 수행을, 위빠사나 관련 서적을 읽을 때는 수식관이나 부정관법을 흉내내고, 간혹선 서적을 읽으면서는 화두를 잡아보았다. 하지만 무엇이든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이해한 다음에야 행동에 옮기는 나의 몸을 버릇때문인지 화두에 대한 의심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과학적인 수

측시 전화를 걸어 신청했다. 더 이상 누구의 지도나 조언 없이 혼자 수행을 해나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이 기회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자기 자신의 수행을 돌이켜 볼 수 있기를 기대하며 수련회를 기다렸다. 드디어 수련회 날 백련암에 도착하자 백련암 수련회의 전통이라면서 삼천 배를 하라는 것이었다. 평소 불교에 대해 이해가 낮은 사람들의 기복적 신앙형태라고 폄하했던 짚을 삼천 번이나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수련회 참가에 대한 성급한 후회가 들었다. 점심공양이 끝난 뒤 삼천 배가 시작되었다. 처음 5백 배가 끝나고 20분간의 휴식시간이 주어졌을 때, 이 무슨 어리석은

일인 내 자신의 모습이 흡사 소주잔으로 태평양을 가능하려 한 꼴이었구나 라는 자괴감이 드는 사이 삼천 배를 마쳤다. 삼천 배를 마치고 다음날, 원택스님으로부터 오계를 받았다. 수계식이 끝나자 지도 법사님과 참가자들이 담소를 나누면서 화두 참구하는 방법에 대해 들려 주었다. "마삼근" 화두가 수련회 참가자 여러 분들에게 주어졌는데, 어느 스님이 동산 스님에게 와서 '부처가 무엇입니까?'라고 묻자, 동산 스님이 '삼 서 근'이라고 답한 데에서 이 화두가 비롯되었습다. 화두를 들 때, 그냥 '마삼근', '마삼근' 하고 영 불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를 물었는데, '어째서 삼 서 근이라고 대답했는고' 하는 의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마삼근'이란 연구에 도달하지 말고 '마삼근'이란 말이 나온 자리, 동산 스님의 마음 자리를 의심해야 한다 이겁니다." 지도 법사님의 설명을 듣자 그 동안 내가 한 수행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나를 다시한번 깨달을 수 있었다. 나는 그때까지 '화두'를 무슨 퀴즈 풀듯 그 연구에 알맞은 대답을 구하는 것이거나, 주력이나 영불처럼 집념을 떨치는 방편쯤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



백련암 수련회를 계기로 나는 수행에 있어서 지도자와 도반의 중요성에 대해 세심 논쟁하게 되었다. 혼자서 책을 통해, 또는 어디서 얻어 들은 짧은 소견으로 수행 하다보면 자칫 같은 자리를 맴도는 우를 범하거나, 정법과는 전혀 동떨어진 사탄 경계에 도달할 위험이 있다는 것도 깨달았다. 그리고 선을 배우고 수행한다는 것은 세속의 학문을 하듯 머리 속을 알음알이로 채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본래모습을 뒤 덮고 있는 본별과 망상을 차츰차츰 털어내는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수련회를 갔다오고 부터 매일 108배를 올리며 하루하루의 삶을 되돌아보고 참회하기 시작했다. 또 절을 올리고 기도하는 것이 맹목적인 기복과 타락 신앙이 아니라, 스스로를 낮추고 비우는 과정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요즘은 하루에 30분씩이라도 화두를 들고 좌복 위에 앉아 탐, 진, 치의 사나운 야생마들을 길들이고 있다. 그래서 자신의 들끓는 마음 속에도 이미 세상의 모든 번뇌가 들어 있어 이제 는 더이상 자기의 마음을 바로 보고 깨우쳐야 이 세상을 참다운 정토(淨土)로 만들 수 있다는 말을 의심하지 않게 되었다. 젊은 날 나는 너무나 물질적, 경제적, 정치적 세계의 변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이성과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인간의 마음에 대한 이해 없이 너무나 성급하게 이상세계를 꿈꾸지는 않았는가 돌이켜 본다. 내년의 참집이 결코 참집도나 망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들, 삼라만상에 대한 본질을 깨닫기 위한 것이며 그러한 깨달음이 사회화될 때 진실로 참다운 세상, 모든 중생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세상이 되리라 굳게 믿는다. 그리고 언제까지나 화두 일념으로 꾸준히 정진해 나갈 것을 스스로 서원한다.

인터넷 불교쇼핑 마하몰 신년 특선 상품전 www.mahamall.co.kr 02)732-1522

108 나한단주

산복숭이씨를 조각한 100% 수공예 작품 염주 한 알에 6분의 나한상이 조각되어 있음
가격 : 20,000원 (고급케이스 포함)

참선명상방석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척추보호
· 일 반 30,000원 · 솜기반 35,000원
· 황토반 35,000원 실용신안 19998-025009
의장등록 제 14387 호

아로마 도자기 램프

단순히 장식용이 아닌, 방향제 외 램프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사용방법 : 적당량의 물을 램프 윗부분의 홈에 담고 아로마 오일을 3~4방울 넣은 후 빛의 강도를 터치버튼을 이용하여 조절하시면 됩니다.
· 가격 : 65,000원 (* 아로마오일 10ml 포함)

죽 비

대나무 밑 부분을 쓰고 4cm 이상 들어가며 (일반형 이상)타 제품보다 튼튼하다.
대나무 1 그루당 죽비 1개 제품만 생산

아로마 스팀 사우나

· 특징 : 설치, 작동이 간편, 증기 고루 분포
· 규격 : 100cm x 90cm x 172cm
· 중량 : 본체 - 32kg, 의자 - 5.5kg
· 가격 : 1,500,000원
· 효과 : 원활한 신진대사, 긴장과피로, 체중 조절, 스트레스 완화, 칼로리 소모 촉진.

연꽃 불자시계

· 남성용, 여성용 각각 119,000원

남원 동천목(孝)제기

· 재 질 : 지리산오리목 · 가격 : 203,000원
· 구성 : 황토 달기, 숯잔, 숯잔받침대2, 내물그릇, 관자, 찻기, 린폼사, 숯잔받침, 찻잔받침, 지평물, 어물, 린물, 황토 & 재제사신

성묘용이동식(휴대용)제기

· 구성 : 중간접시3, 작은접시3, 달기2, 숯잔2, 숯잔받침대2 + 성묘용제기함 + 휴대용가방
· 재질 : 지리산 오리목
· 가격 : 88,000원

제기함

· 규격 : 58cm x 42cm x 48cm
· 가격 : 75,000원

옥산가® 춘천목® 다기 상품

· 옥(玉) 개인다기 구성 : 찻잔(2p), 거름기(2p), 찻잔받침(2p) 가격 : 70,000원
· 옥(玉) 다기세트 구성 : 다관(1p), 숙우(1p), 찻잔(6p), 찻잔받침(6p) 가격 : 330,000원

왕사성의 비극

비디오 (1시간35분) 책 포함 가격 : 20,000원
부처의 자비는 고통받는 자에게 전적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 율가에서는 노는 아이보다도 물에 빠진 아이를 구제하는 것이다.